

# 경기회복·온라인 고성장... 주요 패션 대기업, 1분기 '힐힐'

외출 늘며 오프라인 매출 정상화  
패션기업, 뷰티분야 카테고리 확대  
2분기에도 성장세 유지 전망

국내 주요 패션 대기업들이 지난 1분기 실적 반등을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업계에 따르면 패션분야 주요 기업들은 올해 초 찾아온 실적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캠핑·골프 웨어 등 신설 카테고리 육성, MZ 세대 전용 온라인 브랜드 론칭, 온·오프라인 통합 운영 등 새로운 먹거리 전략을 전개 중이다.

올해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9882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휠라홀딩스는 전년 동기 매출액 7899억원에 비해 25% 가량 상승한 성과를 거뒀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1분기 약 671억원에서 올해 1분기 1836억원으로 174% 가량 신장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무역은 이번 1분기에 매출액 5682억원, 영업이익 74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7%, 46% 신장한 수치를 보였다.

LF와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영업이익 면에서 각각 113%(129억원에서 275억원), 76%(210억원에서 213억원)씩 상승하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휠라X두산베어스 컬렉션’

/뉴시스

며, 한점은 매출액 3333억원, 영업이익 452억원을 기록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부문(코오롱FnC)도 매출 약 47%, 영업이익 101% 신장을 달성했다.

IBK투자증권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외출 활동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판매 부진이 지속됐던 오프라인 매출이 정상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증권업계는 패션 의류가 통상 1분기, 4분기는 성수기고 2분기,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최근 소비경기 회복 추세와 온라인 고성장을 고려할 때 실적 회복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했다. 이에 따라 패션 기업들은 상반기 목표에 집중하며 올초에 세웠던 신 카테고리 활성화와 소비 주역인 MZ세대 흡수,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휠라홀딩스가 보유한 브랜드 ‘휠라’는 골프 부문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10년 전 인수한 타이틀리스트와 자체 골프브랜드 휠라골프를 키우고 있다. 골프웨어 본연의 기능은 충족하면서 전형적인 디자인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소재에 트렌디한 컬러를 적용한 아이템들로 라인업을 구성 중이다.

MZ 세대들이 주목할 만한 신발 커

스터마이징 서비스 마힐라 및 한정판 슈즈 론칭, 프로 스포츠 선수단과의 콜라보레이션 상품 발표 등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LF와 신세계인터내셔널은 기존에 탄탄하게 쌓아온 패션 고객층을 기반으로 뷰티 브랜드로 카테고리를 넓혀가고 있다.

LF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론칭한 자체 여성 화장품 브랜드 ‘아떼’를 발전시켜 비건 색조 화장품 콘셉트로 젊은층에게 주목받은 뒤 현재는 고기능성 헤어 라인까지 상품군을 확대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도 패션과 코스메틱 2개 부문으로 나눠 전문성과 수익성을 따로 키우고 있으며 고기능 스킨케어 브랜드 연작, 최상위 럭셔리 화장품 썬아레 등을 독자적으로 전개하며 해외 진출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코오롱FnC는 코로나 시국에 에피그램, 아카이브앳 등 다수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들을 전문적으로 프로모션하며 온·오프라인의 시너지를 성장 발판으로 삼았다. 짧은 기간 안에 특별한 홍보 없이 육성된 온라인 브랜드들의 지평을 넓혀 팝업스토어, 아플리에, VR 매장 등을 오픈하며 온라인 고객과 오프라인 고객을 호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메이드 바이 스웨덴

/볼보자동차코리아

## 볼보

### ‘메이드 바이 스웨덴’ 운영

볼보 팝업스토어가 경기도 기흥으로 간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일 기흥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메이드 바이 스웨덴’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메이드 바이 스웨덴은 5년차를 맞은 볼보 팝업스토어다. 고객 접점 다변화를 위해 기획된 브랜드 공식 이벤트로 잠재고객의 일상 속 주요 스팟들을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볼보자동차의 최신 모델과 더불어 스웨디시 라이프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이벤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번에는 플래그십 모델인 XC90 전시가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S60 시승권(1명) ▲아이패드 미니 5세대(1명) ▲에어팟 프로(2명) 등을 진행하는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팝업스토어 방문 후 가까운 볼보자동차 전시장을 찾아 인증하는 모든 이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추가로 제공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관람 인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대기 간격 유지를 비롯해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일 2회 체온 측정, 손소독제 비치, 방문객 1회용 장갑 제공 포함 관람 후 차량 클리닝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모든 방문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지속 관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 송영길 “바이든 정부에 개성공단 재개 설득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성공단 입주기업인과 간담회

7월 美 방문, 공단재개 실마리 모색  
“북측, 기업과도 공감대 형성 노력”

여당이 우리 정부, 미국 정부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폐쇄된 지 5년이 훌쩍 지난 개성공단에 실마리가 엮보인다.

개성공단기업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정부의 공식 산출 피해금액에 대한 미지급금 추가 지급, 개성 현지에 두고 온 공장·설비 확인을 위한 방북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성공단 재개까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이다.

6일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입주기업인들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취임한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송영길 대표는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달 말께나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주말인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갖고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췄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과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등을 맡고 있는 송영길 대표는 개성공단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갖고 관련 기업인들과도 지속적으로 교감을 해오고 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창섭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뉴시스

다. 없던 일정을 만들어 이날 갑작스럽게 자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간담회에는 문창섭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유동욱 개성공단기업인협회 고문,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개성공단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초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간담회 일정이 워낙 급하게 잡혀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기존 대북투자 기업들의 대출금 연체율이 1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급증했고, 국가를 믿고 투자했던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서로 지혜를 모아서 국민적 공감대 만들고, 특히 바이든 정부 사람들을 잘 설득

하고, 북측도 잘 공감대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새로운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대표는 7월께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뜻도 전했다.

송 대표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합의를 계승하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했다. 단계적으로 대북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정책을 합의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북측, 개성공단 기업인들과도 여러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회계법인을 통해 2016년 2월 공단 폐쇄 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을 7860억원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362억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이날 기업인들과 여당 대표간 간담회를 통해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근 자체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와 코로나19로 75%의 개성기업들 큰 경영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며, 약 25개 이상 기업이 휴면 및 폐업 상태”라며 “다 죽고 포기하면 어느 누가 다시 정부를 믿고 남북경협에 뛰어들겠나. 점점 지쳐 쓰러져 가는 우리 개성 기업들 반드시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오는 16일 ‘6·15 남북 공동 선언일’에 맞춰 판문점 인근에서 당초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북측 근로자 5만 4000명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전달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문창섭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당초 확인한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못한 피해액을 조속히 집행해 향후 공단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송 대표께서 미국 정부와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손실보상특별법의 조속한 발의 및 통과도 바라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양성운 기자 ysw@